

# 악비(岳飛)와 임경업(林慶業)의 인물형상

허원기

건국대학교 부교수, 한국고전문학 전공  
weongi@hanmail.net

- I. 머리말
- II. 자료현황, 그리고 사실과 허구
- III. 인물형상의 공통점
- IV. 인물형상의 차이점
- V. 임경업 인물형상의 동아시아적 확장가능성
- VI. 맺음말

## I. 머리말

이 글은 악비와 임경업의 인물형상을 비교하고, 그와 관련하여 전형적 인물로서 임경업 인물형의 동아시아 서사문학적 확장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악비와 임경업은 서로 무관한 인물로 보일 수 있다. 악비가 관우와 함께 중국의 한쪽을 대표하는 민족 영웅임을 감안할 때, 임경업을 그와 동급에 놓고 거론하는 것이 일견 부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이순신 정도는 되어야 비교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1)</sup>

악비(岳飛, 1103-1141)는 송나라 사람이고 임경업(林慶業, 1594-1646)은 조선 사람이며, 시대적으로 500여년의 간극이 놓여있다. 특히 중국문학사나 한국문학사 작품 속의 등장인물을 비교할 때는 전파론적 관점에서 일방적 영향관계의 해설이나 기계적 적용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비와 임경업은 이미 숙종 때부터 당대인들에 의해 함께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은 임경업이 살았던 시대와 악비가 살았던 시대가 서로 유관함<sup>2)</sup>을 밝혔고, 그의 제자 정호(鄭澹, 1648-1736)도 임경업의 삶과 악비의 삶이 유사한 점이 있다<sup>3)</sup>고 보았다. 그 이후로 임경업을 논할 때 악비가 언급되는 빈도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임경업 관련기록이 결집된 『임충민공실기(林忠愍公實記)』를 보면, 송시열과 정호 이외에도, 중간본의 서문을 쓴 송병선(宋秉璿)과 이필용(李弼鎔)을 비롯하여, 정조(正祖)<sup>4)</sup>, 조병호(趙秉鎬)<sup>5)</sup>, 김구명(金九鳴)<sup>6)</sup>, 백봉석(白鳳奭)<sup>7)</sup>, 이재극(李載克)<sup>8)</sup> 등이 악비와의 관련 속에서 임경업을 이해하

1) 실제로 송시열과 효종은 이순신을 악비에 비견하기도 했다.

2) 『宋子大全』卷213, 「林將軍慶業傳」. “按崇禎丙子 虜人僭號 遣使於我 有同金虜之詔諭江南”; 『宋子大全』卷213, 「林將軍慶業傳」: “掌令洪翼漢 在鄉上疏 …… 仍請斥主和臣不趨如胡澹菴之於秦檜.”

송시열의 〈임장군경업전〉은 제주에 유배 중이던 1689년에 지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3) 『林忠愍公實記』, 「傳跋」(鄭澹 찬). “展布大志 掃清中原 而不幸運去事敗 縛還本朝 卒以武穆之忠貞 酷被賊檜之鍛鍊 飲恨而死於桁楊之下”

4) 위의 책, 「賜祭文」.

5) 위의 책, 「墓碣銘」.

6) 위의 책, 「白馬城祠祠版奉安祭文」.

고 임경업 속에서 악비의 형상을 연상하며 읽어내고 있음을 두루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584년(선조17)에 악비의 일생을 다룬 『회찬송악악 무목왕정충록(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sup>9)</sup>이 인쇄되고, 1709년에 숙종이 그것을 중간(重刊)하여 어제 서문을 직접 쓰는 등<sup>10)</sup>, 정충록이 널리 읽히게 되었던 저간의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역모의 누명을 쓰고 죽었던 임경업이 신원복관 되었던 해인 1697년과 숙종이 어제 서문을 썼던 1709년, 그리고 송시열과 정호가 임경업의 전(傳)과 전발(傳跋)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 무렵은 거의 같은 시기이다. 숙종 연간은 집권층이 임병양란 이후에 무너진 중세적 가치와 질서를 재확립하고 한층 강화하던 시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악비와 임경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함께 조명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악비와 더불어 임경업을 본격적으로 현창하게 된 것은 동시대의 사상적 분위기와 시대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임경업에게서 악비의 형상을 발견하고 싶어 했으며, 모종의 필요에 따라 ‘조선의 악비 만들기’에 임경업이 최적의 인물로 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임경업을 바라보는 조선 사람들의 시선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심성의 양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사문학사에서 두 인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임경업의 인물형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된 바 있다. 기존연구에서 임경업의 인물형상은 배척의식에 바탕을 둔 민족영웅<sup>11)</sup>으로, 민중영웅이면서 민족영웅이며 만고충신<sup>12)</sup>으로, 왕실과 사대 부층에게는 숭배배척 이념의 화신으로 추앙되었으나 민중들에게는 약자를 돕는 민중영웅<sup>13)</sup>으로, 존명의리를 구체화하여 남명정부의 구원장으로 종묘사직의 수호자를 형상화한 인물<sup>14)</sup>로, 경판 <임장군전>에서는 배척

7) 위의 책, 「大明忠義林公傳」, 「顯忠誌開刊所異事錄」.

8) 위의 책, 「實記重刊跋」.

9) 이하 『정충록』으로 약칭함.

10) 후에 영조는 악비의 제문(1730년)을 남기기도 하였다.

11) 서대석, 「임경업전 연구」, 『고전소설연구』(정음사, 1979).

12) 이복규, 『임경업전 연구』(집문당, 1993).

13) 박경남, 「임경업 영웅상의 실체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3집(2003).

14) 권혁래, 「임경업전의 주인공 형상과 이데올로기」, 『고소설연구』 제35집(2013).

의식이 완화되어 변화된 대청의식을 반영하는 인물<sup>15)</sup>로 파악한 바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 바탕을 두고 악비의 인물형상과 관련하여 임경업의 인물형상을 본격적으로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경업을 바라보는 조선 사람들의 심성을 근저를 탐색해 보고, 전형으로서 임경업 인물형상의 동아시아적 확장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전과 소설 등의 서사자료에 나타난 두 인물의 인물형상을 두루 비교하여 검토하겠지만,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보조적으로 그 밖의 역사자료를 참고하기도 할 것이다. 우선 자료의 현황과 함께, 사실과 허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두 인물 형상의 공통점을 살펴본 후, 그 차이점을 검토하고, 두 인물형의 서사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거론하는 과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II. 자료현황, 그리고 사실과 허구

악비는 본래 농민 출신으로 북송말기에 의용군으로 참전하여 전공을 쌓았다. 남송 초기에도 금나라와의 여러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호북 지역을 차지한 대군벌이 되어 중원회복을 시도했다. 그러나 금과의 화친을 추진했던 재상 진회(秦檜)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해되었다. 이러한 악비의 생애는 『송사(宋史)』 열전 권365에 수록된 〈악비전(岳飛傳)〉과 『송사(宋史)』 본기의 고종 부분과 효종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한 소설 작품으로는 〈대송중흥통속연의(大宋中興通俗演義)〉, 〈대송중흥악왕전(大宋中興岳王傳)〉, 〈악무목정충전(岳武穆王精忠傳)〉, 〈설악전전(說岳全傳)〉 등이 있으며, 한글본으로는 〈무목왕정통록〉, 〈대송홍망록〉 등이 전한다.

이 글에서는 역사자료로 송사 열전의 〈악비전〉과 송사 본기의 자료와, 소설자료로 악비고사를 소재로 한 후대소설의 모범이 되었던 〈대송중흥통속연의〉<sup>16)</sup>와 악비고사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설악전전〉을 분석

15) 서혜은, 「경관 〈임장군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제27집(2009).

16) 조선시대 한글번역본인 〈무목왕정통록〉의 자료도 검토대상으로 삼는다.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다.

이들 소설작품들은 송사 열전과 송사 본기의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했으며 허구적인 내용들을 추가했다. 소설에 나타나는 허구적인 사건으로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은 진희가 죽어 지옥에서 악행에 대한 응보를 받는 대목이 출현한다<sup>17)</sup>는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대송중흥통속연의>의 서사적 전개에서 역사적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주목할 만한 허구적 사건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악비의 항쟁활동에 약간의 허구와 민간고사가 추가되었지만, 이것이 역사의 객관적인 사실을 손상시키거나, 기존의 역사를 부정하고 새로 대체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좀 더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한 사소한 정도의 보완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억울하게 죽은 악비의 삶에 공감하면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주제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진희에 대한 지옥의 징벌을 추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허구적 내용의 비중은 <대송중흥통속연의> 보다 <설악전전>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설악전전>에서는 진희의 지옥보응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허구적인 서사를 전개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허구적인 서사는, 악비 사후에 악비의 차남 악뢰(岳雷)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금나라를 정벌하여 금나라 군주의 항복을 받고 휘종과 흠종 두 황제의 유골을 고국으로 모셔오는 내용<sup>18)</sup>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초월적인 천상계와의 관련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악비는 원래 석가여래를 호위하던 천상계의 신 대봉 금시조(金翅鳥)였는데, 부모가 관음보살에게 기차치 성하여 인간계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단단(陳搏)노조는 하계하여 ‘비(飛)’라는 이름과 ‘봉거(鵬舉)’라는 자를 지어주고 악비의 고난을 예언했다. 악비는 사후에 다시 천상으로 복귀했다. 이러한 점에서 악비는 일종의 적강(謫降)형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악비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웅이기 때문에 영웅으로서 갖추어야 할 무기 또한 영험함이 담겨있고 어렵게 얻게 된다. 악비는 역천동에서 괴물과 싸워 역천신창(瀝泉神槍)을 얻게 된다. 훗날 악비가 12도 금패를 받고 임안으로 가던 도중에 이 괴물이 다시 나타나 창을 거두어간다. 이는 하늘이

17) 『대송중흥통속연의』의 「冥司中報應秦檜」(80회)와 『설악전전』의 73회 「胡夢蝶醉后吟詩遊地獄」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18) 이 내용은 75회부터 80회까지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영웅에게 내린 무기임을 암시해주고, 무기를 다시 거두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영웅의 죽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서사적 설정은 악비를 신격화하고 미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사소한 허구적 설정이 더 있지만 그것이 서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역사를 통해 형성된 악비의 근본적인 인물형상에 변동을 줄 정도가 되지 못한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임경업은 조선중기의 명장이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임경업은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시기에 두루 활동하다가 심기원의 역모에 연관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죽은 인물이며 숙종 때에 이르러서 신원복권된 인물이다. 임경업에 대한 역사적인 관련 문헌들은 숙종 때와 고종 때에 간행된 『임충민공실기(林忠愍公實記)』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전(傳) 13편, 설화 96편이 아울러 전해지고 있다. 역사적인 사실에 허구적인 윤색을 가한 소설들은 39종이 확인되었으며 미확인 활자본 9종을 더하면 47종이 전해지고 있다.<sup>19)</sup>

소설에 등장하는 임경업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인물이 실존인물이지만, 이들 실존인물들이 등장하여 전개해가는 서사적 사건들은 허구적인 내용이 많다. 역사적 실기와 전을 문학적 소설과 비교한 논의는 임경업전 연구사 초창기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sup>20)</sup> 기존연구에서 거론된 바에 의하면 역사기록에 없는 허구적인 내용으로서 소설에 추가된 화소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임경업이 이시백의 군관이 되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그 무렵 가달이 호국(청)을 침범하여 호국이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자, 조선군관 임경업이 명군의 대장군으로 참전하여 가달을 물리쳤고, 호왕과 명나라 황제에게 감사와 칭찬을 들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 후 호국 군대 7천이 압록강을 침범했을 때 필마단창으로 적군을 섬멸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 병자호란 때 청군이 임경업장군의 백마산성을 거치지 않고 침투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왕이 청군에게 항복한 후에 내린 유지가 도착할 때까지도 변란을

19) 장경남, 「임경업전 연구사」, 『고소설연구사』(월인, 2002), 325-332쪽.

20) 대표적인 연구사례로는 윤영옥, 「임경업전연구」, 『국어국문학연구』15(1973); 서대석, 「임경업전연구」, 『하성 이선근박사 고회기념논문집』(1974) (국어국문학회편, 『고전소설연구』(정음사, 1979)에 재수록); 김장동, 『조선조역사소설연구』(이우출판사, 1987); 임동철, 「임장군전 연구」, 『심상논총』1(심상사, 1979) 등을 들 수 있다.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포로가 된 임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호왕이 세자와 대군을 조선으로 돌려보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김자점이 임경업과 극단적으로 대적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임경업이 병자호란 때 백마산성을 지킨 일, 망명하여 반청활동을 한 일, 청나라의 원군으로 출전하여 명군을 칠 때 청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일 등 소설 속 일부의 내용만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임경업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에서 대부분의 서사적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실과 매우 다르다.

악비를 주인공으로 형상화한 소설들은 비록 초월적인 천상계의 개입을 수용하였지만 실제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서사적 사건으로 변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경업을 주인공으로 형상화한 소설들은 초월적인 세계의 개입을 배제하면서도 실제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대폭 변개하여 허구적 서사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 Ⅲ. 인물형상의 공통점

기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두 인물의 삶과 그 형상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오랑캐가 중원을 차지했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악비가 살던 시대와 임경업이 살던 시대는 역사적인 배경에서 매우 유사하다. 비록 500여년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중국과 조선이라는 공간적 거리가 있지만, 시대적 상황은 동아시아의 중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춘추대의의 화이관(華夷觀)의 관점에서,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송나라와 조선은 각기 금나라와 청나라의 외침을 겪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송나라는 ‘정강(靖康)의 변’을 당하여 휘종과 흠종이 볼모로 잡혀가고 북송이 망하게 된다. 조선도 병자호란을 겪으며 ‘삼전도(三田渡)의 굴욕’을 당하고 왕자들이 볼모로 잡혀간다. 동아시아의 중세적인 세계관인 화이관에 비추어 볼 때, 금나라와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로 이른바 오랑캐(夷狄) 문명에 해당한다.

동아시아에서 성인의 교화가 통용되어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문명은 중화(中華)의 세계로 그리하지 못하는 세계는 오랑캐(夷狄)의 세계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이적의 문화는 인간의 문화라 할 수 없는, 인간보다 못한 금수(禽獸)를 닮은 문화로 종종 비유되기도 했다. 중화는 인성을 수호하는 주체로서 천명을 받아 그 사명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금수와도 같은 이적의 문화를 정벌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문화를 교화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중세적 화이관에 따른 세계질서는 중화문명이 군사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중세적 세계질서가 동요할 수밖에 없었고, 기존의 세계관을 고수하는데 심각한 난관이 있었다.

임경업과 악비는 모두 이적(夷狄)으로부터 중화(中華)문명이 위기에 처했던 시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악비는 물론 중화문명에 속하는 인물이었지만, 임경업을 비롯한 그 시대 조선 사람들도 심정적으로는 자신들이 중화문명에 속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화문명을 감당할 만한 군사력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적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 『대송중흥통속연의』(한글번역본 제목 〈무목왕정통록〉)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짚진하게 서술하면서 작품을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중세적 화이관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고난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두 주인공의 서사적 갈등이 생겨난다. 더군다나 외침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와 더불어 중세적 화이관에 반하는 내부의 간신들로 인해 두 인물의 고난은 가중된다. 그런 인물로 악비에게는 진회(秦檜)가 있고, 임경업에게는 김자점(金自點)이 있다. 그런 점에서 악비와 임경업의 삶은 시대적인 배경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둘째, 『춘추』의 가치를 숭상했던 무장(武將)이라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중세적 세계관인 화이론은 ‘존주양이(尊周攘夷)’라고 하는 『춘추(春秋)』의 의리론과 명분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악비와 임경업은 모두 평소에 『춘추』를 즐겨 읽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송사』의 〈악비전〉<sup>21)</sup>에는 악비가 “집안이 가난했으나 학문에 힘썼으

21) 이하 〈악비전〉으로 지칭함.



며, 특히 『춘추좌씨전』과 손오병법을 좋아했다”<sup>22)</sup>고 하였다. 소설 〈무목왕정통낙〉에서도 악비가 “집이 가난하디 글을 힘써 학야 더욱 좌시춘추와 손오의 병법을 도하하”<sup>23)</sup>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원래 『춘추』를 즐겨 읽는 명장의 인물 연원은 관우(關羽)에게서 비롯된다. 진수(陳壽)의 정사 『삼국지』 배송지(裴松之) 주해<sup>24)</sup>와 『삼국지평화』에서의 서술<sup>25)</sup>에 근거해 소설 『삼국지연의』 곳곳에 관우가 『춘추』를 가까이 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관우가 문무를 겸비한 명장이라는 인물형상을 창출하였다. 〈악비전〉의 사론에서도 관우가 『춘추좌씨전』에 통달했던 사례를 들어 악비의 인물평을 하고 있다.

송나라 악비처럼 문무를 겸전하고 어둡과 지혜를 모두 베푸는 자를 어찌 한 시대에 여러 번 볼 수 있겠는가? 역사에서는 관우가 춘추좌씨학에 달통했다고 일컬었으나, 그의 문장은 보지 못하였다. 악비가 북벌하여 군대가 변양의 주선진에 이르렀을 때, 군대를 돌리라는 조서가 있었다. 악비가 조서에 답하는 표를 스스로 지었다. 충의의 말이 폐부로부터 흘러나왔으니 참으로 제갈공명의 기풍이 있었으나 끝내는 진회의 손에 죽었다.<sup>26)</sup>

관우가 비록 『춘추』에 통달하고 문무를 겸전한 명장이었지만, 전해지는 문장이나 문헌이 없어 실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악비는 관우와 다르게 뛰어난 문장들이 남아 있고, 그가 북벌 과정에서 고종의 조서에 답한 글은 제갈량이 출전하면서 남긴 〈출사표〉에 비길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음을 강조하였다.

임경업도 병서에 통달했으며, 『춘추』를 읽는 버릇이 있었다<sup>27)</sup>고 한다. 영조임금도 묘소에 제문을 내리면서 ‘무로는 손오병법에 통달했고, 문으

22) 『宋史』 권365, 〈岳飛傳〉. “家貧力學, 尤好左氏春秋·孫吳兵法.”

23) 『무목왕정통낙』, 권지이, 2쪽.

24) 『三國志』, 「蜀書」, 〈關張馬黃趙傳〉. “江表傳曰; 羽好左氏傳, 諷誦略皆上口.”

25) 『三國志平話』 卷上. “姓關名羽, 字雲長 …… 喜看春秋左傳, 觀亂臣賊子, 便生怒惡.”  
『三國志平話』 卷中. “關公自小讀書, 看春秋左氏傳.”

26) 『宋史』 권365, 〈岳飛傳〉. “求其文武全器·仁智竝施, 如宋岳飛者, 一代豈多見哉. 史稱關雲長通春秋左氏學, 然未嘗見其文章. 飛北伐, 軍至汴梁之朱仙鎮, 有詔班師. 飛自爲表答詔. 忠義之言, 流出肺腑, 真有諸葛孔明之風, 而卒死於秦檜之手.”

27) 『林忠愍公實記』, 「神道碑銘」(鄭宗 찬). “曉達韜鈴之書, 飽聞春秋之癖.”

로는 『춘추』를 읽었다'28)는 점을 첫 문장에 제시했다. 특히 송시열은 임경업의 전을 지어 천백 년에 한번이나 있을 정도로 『춘추』를 잘 이해한 사람이었다고 평하였다.

공자가 『춘추』를 지어서 만세에 법을 드리웠다. 『춘추』가 저술된 후 지금 이천 년이 지나도록, 이른바 이 글을 읽은 자가 많았다. 그러나 그 빛나는 대의를 아는 자는 대체로 적었다. 지금 장군은 해외의 배신(陪臣)으로서 존주(尊周)의 한 마음이 흐르는 물처럼 한결같아, 비록 오랑캐의 흉포함으로도 끝내 굴복시키지 못하였으니, 실로 천백 년 만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적신이 끝내 그를 죽이고야 말았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의 손에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앞에서 제시한 〈악비전〉의 사평(史評)과 상당히 유사하다.

셋째, 중화문명의 수호자로서 중원회복을 꿈꾸었다는 점이다.

두 인물은 『춘추』를 애독한 명장으로 춘추대의(春秋大義)에 밝았다. 그러므로 오랑캐가 중원을 차지하면서 화이(華夷)의 질서가 역전되었던 시대에, 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에게는 중화문명을 수호하고 오랑캐로부터 중원을 회복하는 것이 필생의 과업이었다.

『송사』의 〈악비전〉은 악비를 주인공으로 다룬 후대 서사문학 작품의 모본으로 작용하였다. 9,000여자에 이르는 긴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악비의 출생과 관련한 일화 및 어린 시절 행적은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고, 의용군으로 입대한 후 20여 년 동안 금나라와의 30여 차례 크고 작은 전투에서 보여준 행적과 전공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화의를 주장하던 진희에 맞서다가 하옥되어 죽음을 당하고 이후 사면·복권·추증되는 과정을 주로 기록하였다. 악비가 중화문명을 수호하고 중원회복에 온 몸을 바쳐 헌신했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악비의 역사를 형상화한 소설들의 양상도 다르지 않다. 한글본

28) 『林忠愍公實記』, 「賜祭文」. “武通孫吳, 文讀春秋.”

29) 宋時烈, 『宋子大全』 권213, 「林將軍慶業傳」. “孔子作春秋, 垂法萬世. 自獲麟, 以至於今二千年, 所讀此書者多矣. 而能知其大義炳然者, 蓋寡矣. 將軍以海外陪臣, 尊周一心始終如水, 雖以虜之凶暴, 終不能屈, 可謂千百年一人而已, 賊臣之必殺而後已.”

〈무목왕정통록〉과 이 소설의 원본이 되었던 〈대송중흥통속연의〉에도 중화문명을 수호하고 중원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한 악비의 행적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무목왕정통록〉에서 악비는 “오늘날 호로(胡虜)를 소탕하고 이데(二帝)를 마자 도라오고 넷날 강산을 회복하야 국가 은혜를 갑흐미 이 나의 평심 원흐는 배라”<sup>30)</sup>고 말한다. 같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무목왕정통록’은 주인공과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제목을 명명한 것이고, ‘대송중흥통속연의’는 복송을 중흥하고자하는 주제에 초점을 두고 제목을 명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악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황제에게 중원회복의 계책을 올리고, 중원을 회복하고 두 황제를 다시 모셔오겠다는 뜻을 자주 표한다. 이른바 ‘송나라의 강산을 보호하고 두 황제를 모셔오는 것(保宋室江山, 迎還二聖)’이 악비가 추구한 필생의 과업이었다. 특히 악비가 주선진에 진을 치고 북송의 수도였던 변경을 수복하기 위해 금나라의 수도인 황룡부로 진격하는 대목에서 중원회복의 포부는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진회는 금패를 발행하여 악비에게 회군하도록 명한다. 악비가 회군하자 금나라 군대가 다시 침입해온다. 이에 악비는 적의 수도가 텅 비어있는 틈을 타서 적의 수도를 공격하자고 건의하지만 고종은 진회의 말만 듣고 허락하지 않는다. 그 후 진회는 악비의 병권을 박탈하고 악비는 낙향한다. 진회는 결국 흉계를 꾸며 거짓 성지를 내려 악비를 살해한다. 결국 북송 중흥의 큰 꿈은 물거품이 된다.

임경업의 경우에도 역사기록과 소설에 나타난 삶의 지향점이 악비와 다르지 않다. 임경업은 “신이 호국을 멸하고 세 조와 티군을 뒤희어갈 주야로 원이웁더니(남장군전, 262쪽)”<sup>31)</sup>라고 필생의 목적을 말한다. 그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여러 산성을 수축하고 봉수대를 정비하였으며, 여러 곳에 둔전을 개설하였다. 백마산성을 근거지로 하여 북방을 수비하면서 오랑캐의 침입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비하였다. 또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명나라에 반기를 들고 후금과 내통했던 공유덕(孔有德)과 경중명(耿仲明)의 군대를 섬멸하였다. 이 때문에 명나라 황제로부터 총병(摠兵) 벼슬을 받아 이름이 크게 알려졌다. 또한 병자호란 때는 백마산성을 굳게 지키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던

30) 『무목왕정통록』 권지이, 88쪽.

31) 김기현 역주, 「임장군전」, 『한국고전문학전집』1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청나라 장수 요퇴(要魃)의 300기 정예기병을 압록강에서 무찌르고 잡혀가던 우리 백성 남녀 120여 명과 말 60여 필을 빼앗는 전과를 올렸다. 병자호란 이후 청군과 연합하여 명나라의 가도(假島), 금주위(錦州衛)를 공격할 때도 명나라와 은밀히 내통하여 청나라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나라와 내통한 사실이 밝혀져 그는 청나라로 압송되던 도중에 탈출하여 명나라에 망명한다. 명나라로 망명한 후 명나라의 장군이 되어 증원회복을 의도하였으나 명나라의 상관이 항복하면서 결국 청나라의 포로가 되었다. 청나라를 섭정하던 예친왕(睿親王)은 그를 회유하려 하였으나 임경업은 이를 거부하고 조선으로 압송된다. 그 후 심기원의 역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김자점에 의해 억울하게 죽게 된다.<sup>32)</sup>

또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악비와 같이 임경업도 청나라의 수도를 바로 공격하겠다는 의견을 위에 올렸다. 병자호란이 일어나 남한산성이 포위되었을 때 오천의 병력을 요청하면서 오랑캐의 본거지를 쳐서 남한산성의 포위를 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상관이었던 평안병마절도사 유림(柳琳)이 허락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sup>33)</sup>

소설 〈임경업전〉에는 조선 사신 이시백의 군관으로 명나라에 가서 가달의 난을 평정한 사건이 추가되어 있다. 이때 호국(후금)에 가달이 침입하여 호국이 명나라에 구원 요청을 한 것으로 나온다. 명나라 황제는 임경업을 명나라의 대장군으로 임명하여 호국을 구원하게 하고 임경업은 가달을 물리쳐 호국을 위기에서 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소설에서의 허구적인 설정이다. 외국 사신단의 일행을 자기 나라 군대의 대장군으로 삼는 일은 없을뿐더러 그로 하여금 외국을 치게 하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소설적 허구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임경업은 화이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크게 공헌한다.<sup>34)</sup>

32) 이 글에서 논하는 역사적인 기록은 주로 『林忠愍公實記』의 「年譜」와 「行狀」의 내용을 참조함.

33)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소설에는 실려 있지 않다. 소설에서는 호국의 침략과 조선왕의 항복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안 것으로 되어 있다.

34)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가달의 난을 평정했다는 소설 속의 사건은 허구이지만, 조선의 북방에서 가달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 임경업이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요동에 살던 한인들 가운데 후금에서 탈출해온 요민(遼民)들을 ‘假獫’이라고 불렀다. 가달은 ‘가짜 오랑캐(獫)’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족 가운데 후금으로 귀순하거나 포로로 잡혀가 머리를 깎인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의 한 무리는 가도로 들어가 모문룡의 휘하가 되기도 했고, 청천강 북쪽 지역을 휩쓸며 온갖

이러한 임경업의 여러 가지 행적들은 모두 중화문명의 수호와 중원회복의 명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넷째,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간신에 의해 죽었다는 점이다.

두 인물은 전쟁터에서 적군의 손에 의해 죽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나라의 황제나 왕의 명에 따라 공식적으로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었다. 장수가 전쟁터에서 죽는 것도 명예로운 일이다. 잘못을 하여 공론에 따라 죽게 된다면 그것도 사필귀정이라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인물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내부의 간신에 의해 억울하게 죽었다.

악비의 죽음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진회는 ‘아마도 잘못이 있을 것莫須有이라는 죄목을 씌워 옥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일은 ‘막수유옥사(莫須有獄事)로 불리기도 한다. 옥사에서 어떠한 증좌도 나오지 않았고, 조사를 담당했던 많은 관리들도 죄가 없다고 하였으며, 많은 신하들이 악비를 변호하였지만, 결국 악비는 죽음을 당한다. 이것은 권력을 잡고 있던 진회가 금나라의 울출과 내통하여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다. 울출은 진회에게 서신을 보내 “그대가 아침저녁으로 화친을 청하지만, 악비가 바야흐로 하복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니 반드시 악비가 죽어야 화친이 시작될 수 있다.”<sup>35)</sup>고 말한다. 화친을 도모하던 진회에게 척화를 주장하며 중원회복을 꾀하던 악비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대상이었다.

악비에게 진회가 있다면 임경업에게는 김자점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날 김자점은 임경업의 상관이었으며, 친밀한 후원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경업이 심기원의 역모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자 김자점은 임경업의 처형을 주장한다. 그것은 자신의 종이었던 무급이 임경업의 망명을 도왔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도 역모에 얽히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설 〈임경업전〉에서는 심기원의 옥사가 다루어지지 않는다. 김자점은 평소에 반역하고자 하는 불측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충신인 임경업을 제거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 몰래 흉계를 꾸며 임경업을 죽인 것으로 설정하였다. 병자호란 이후 김자점이 친청(親淸)의 노선을 걷게 되지만, 소설에서 그가 임경업을 죽인 직접적인 이유는 김자점의 역심에 있었던 것으로

행패를 부렸다.(한명기, 『병자호란』(푸른역사, 2015), 104-108쪽 참조.)

35) 『宋史』 권365, 〈岳飛傳〉. “汝朝夕以和請, 而岳飛方爲河北圖, 必殺飛, 始可和.”

그러지고 있다. 진회가 금나라와 화친하기 위해 주전파인 악비를 죽인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부의 부패와 모순에 의해 주인공들이 죽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다섯째, 일심(一心)의 방법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방법에 통달해야 하는 것은, 명장이라면 당연히 갖춰야할 조건이다. 악비와 임정업도 방법에 통달한 인물로 형상화 되어 있다.

악비의 전술과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대송중흥통속연의>의 제13장 ‘악비여택담병법(岳飛與澤談兵法)’의 한 대목이다. 종택(宗澤)이 악비에게 한 책의 진도(陣圖)를 내려주고 익히게 했으나 악비는 한번 보고 돌려보낸다. 종택이 진법에 대해 의견을 묻자 악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제가 진도를 자세히 보니 이것은 죽을 법이었습니다. 옛날과 지금이 같지 않습니다. 전투하는 곳도 넓은 곳과 좁은 곳, 험한 곳과 평탄한 곳이 있습니다. 어찌 일정한 진도를 사용하겠습니까? 대저 용병하는 대요는 기(奇)에 있으니 적으로 하여금 나의 허실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여야 바야흐로 이길 것입니다. 만약에 광활한 평지에 있다가 도적들이 갑자기 와도, 이때 진세를 벌려 그들과 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유수 휘하의 장사들이 진법을 아는 자가 적으니, 만약 오직 진법을 쓰고 권도로 변통하지 못한다면 적이 이미 우리의 허실을 알게 되어 저들이 정병으로 사방에서 공격하면, 이때 아군은 하나도 남기 어려울 것입니다.<sup>36)</sup>

이렇게 이야기 하자, 종택이 다시 묻는다. “그대의 의논에 따르면, 옛 사람의 진법은 소용이 없다는 것인가?”<sup>37)</sup> 이에 대해 악비는 방법의 요체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진세(陣勢)를 벌이고 나서 싸우는 것은 병가(兵家)의 상사입니다. 그러나 용병하는 법은 이것을 목숨처럼 고집하지 않습니다. 용병하는 묘체는 온전히 일심(一心)에 있습니다.<sup>38)</sup>

36) 『大宋中興通俗演義』, 「岳飛與澤談兵法」. “古時與今時不同, 戰地有廣狹險易, 豈用得一定的陣圖? 夫用兵大要在於出奇, 使敵人不能測我之虛實, 方可取勝. 若在平地廣闊處, 忽有賊倉卒而來, 那時怎得工夫排布陣勢與他敵對? 況今留守麾下將士, 知陣法者少, 若專用陣法, 不知以權濟變, 已被敵人知我虛實, 彼以精兵四下而來, 那時我軍難留一個矣.”

37) 『大宋中興通俗演義』, 「岳飛與澤談兵法」. “據爾之論, 古時陣法不必用也.”

38) 『大宋中興通俗演義』, 「岳飛與澤談兵法」. “排了陣勢, 然後方戰, 此乃兵家之常法. 然用

전쟁의 성패가 결국 전쟁 당사자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심(心)醫’를 최고로 칭한다. 심의는 환자의 마음을 정성껏 돌보고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유교의 성리학에서도 인간의 본질을 ‘심성적 존재’로 이해한다. 전쟁도 결국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마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병법에서도 마음을 중요한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불화하지 않고 합심해야 하고, 전쟁의 운용은 아군과 적군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심의 병법’이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그러한 점에서 악비의 군대는 다른 군대와는 달랐다. 이에 대해 〈악비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거병할 일이 생기면, 여러 통제(統制)들을 모두 불러 함께 의논했으며, 계획이 정해진 이후에 싸웠다. 그래서 승리는 있어도 패배는 없었다. 갑자기 적을 만나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들은 “산을 움직이기는 쉬워도 악가군을 움직이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sup>40)</sup>

또한 악비는 병든 군졸을 위해 몸소 약을 달였고, 장수들이 수자리를 나가면 아내를 보내 그 집안을 위문하게 했다. 그리고 죽는 사람이 생기면 곡하고 고아를 거두어 길렀으며 아들을 그 딸과 혼인하게 하였다. 하사받은 음식은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게 했다.<sup>41)</sup> 악비는 장졸들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 성심을 다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백성의 민심을 얻고, 그로 인해 적으로 하여금 악비의 군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군대라고 마음먹게 만들었다.

임경업도 장졸들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 성심을 다했다. 그러한 모습은 소설에 더욱 잘 형상화되어 있다. 무비(武備)를 철저히 하여 천마산성을 보수할 때, 임경업은 소를 잡고 술을 빚어 군졸들을 매일 잘 먹이고,

兵之法，不可死執於此。其用兵之妙，全在乎一心。；『송사』 〈악비전〉에서는 “운용의 묘가 일심을 보존하는 데 있다(運用之妙，存乎一心)”고 하였고 『무목왕정통록』에서는 “용병하는 법은 전혀 일심 한 마음의 이시니” 라고 말한다.

39) 이순신도 평소에 수결로 ‘一心’이라는 글자를 사용했다고 한다.

40) 『宋史』 권365, 〈岳飛傳〉. “欲有所舉，盡召諸統制與謀，謀定而後傳，故有勝無敗。猝遇敵不動，故敵爲之語曰，撼山易，撼岳家軍難。”

41) 『宋史』 권365, 〈岳飛傳〉. “卒有疾，躬爲調藥，諸將遠戍，遣妻問勞其家，死事者哭之而育其孤，或以子婚其女。凡有頒犒，均給軍吏，私毫不私。”

축고 더웁과 괴롭고 기쁨을 극진히 염려하며, 역군들 사이에서 함께  
들을 날랐다.

중군이 친히 들을 지고 군사 중에 셋겨올시, 역군등이 쉬거늘 중군이 쏘한 쉬더니,  
흔 역군이 이르되, “우리 그만 쉬고 어서 가즈, 중군이 알세라.” 흐거늘, 중군이 쇼랄,  
“님중군(林中軍)도 쉬니 관겨하라.”흔디, 역군등이 그 쇼리를 듯고 일시에 놀나 도라보  
며 흐는 말이, “더욱 감격하니 어서 가즈, 밧비 가즈.” 흐거늘, 중군이 그 말을 듯고  
“더 쉬여 가자.” 흔즉, 역군등이 일시에 이러 가니라.

츄후로 이럿툃 진심<sup>흔</sup>미 불일성지하여 일년 만에 필역(畢役)<sup>흔</sup>되 흔 곳도 허슈<sup>흔</sup>미  
업는지라. (님장군전, 227쪽)<sup>42)</sup>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명도 상한 군사가 없이 일이 마무리되니  
군사들이 모두 감사해마지 않는다. 소설이기에 허구적으로 과장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역사기록을 보아도 그가 청북지역에서 군사들  
과 백성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나라와 연합하여 가도에 출병했을 때와 금주위에 출병했을 때도  
명나라와 통하여 청나라에 협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청나라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려면  
비밀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군이 한 마음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점들로 보면 악비의 군대 운용과 임경업의 군대 운용은 마음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후대에 신격화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악비와 임경업은 모두 민족의 영웅이면서 민중의 영웅이다. 또한  
영웅을 넘어서 후대에 신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악비가 죽고, 진희와 고종도 세상을 떠나자 그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고종의 뒤를 이은 효종은 즉위하던 해(1162년)에 수도 향주  
의 서호 근처에서 악비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원래의 관직을 회복하  
였다. 후에는 시호를 ‘무목(武穆)’이라고 했다가 ‘충무(忠武)’로 개정했다.  
그 후 왕으로 추송되어 ‘악왕(鄂王)’이라 부르고 ‘악왕묘(岳王廟)’를 만들어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악비를 추도하는 사당이 전국 각처에  
생겨나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악비를 기존의 관우 사당에 함께 제사하는

42) 김기현 역주, 『임장군전』, 『한국고전문학전집』1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관악묘(關岳廟)’도 생겨나게 되었다. 관악묘는 ‘무묘(武廟)’로 불리며 공자를 모시는 ‘문묘(文廟)’에 대칭되는 것이다. 공자가 문을 대표하듯이, 악비는 현재 관우와 더불어 무를 대표하는 영웅으로 추앙을 받으며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되었다.

임경업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마을의 주신, 조기를 비롯한 어업의 풍어를 위한 신, 항해 도중의 안전을 기원하는 항해의 안전신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되었다.<sup>43)</sup>

또한 민간에서는 임경업장군신이 흔히 잡귀를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며, 무병장수와 평안과 태평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임경업장군은 무당들의 수호신이기도 하다. 남지무당은 무신도 형태로 임경업장군신을 모시며, 여자무당은 임경업장군신의 상징으로 ‘고비전’이라 하여 종이를 오려 만든 것을 신당의 벽에 걸기도 한다.<sup>44)</sup>

한국과 중국에서 사후에 신격화되는 인물들은, 유독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이 많고, 억울하게 죽은 인물 중에는 장군이 많으며, 이들은 일반인들에 행동의 귀감이 되는 경우가 많다.<sup>45)</sup> 이러한 공통점이 악비와 임경업의 인물형상에 잘 나타난다.

#### IV. 인물형상의 차이점

앞에서 두 인물형상의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두 인물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점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첫째, 전공(戰功)의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악비는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나, 임경업이 악비와 같은 정도로 위대한 전공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43) 서종원, 「서해안 지역의 임경업 신앙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14집(동아시아고대학회, 2006). 참조.

44) 오세길, 「임경업장군」,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편』, 한국민속박물관(<http://folkency.nfm.go.kr/kr/topic/임경업장군/2681> 참조).

45) 그밖에 인물이 특정지역과 관련이 있는 경우, 후대에 신원 내지 복권되는 경우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임경업은 몇 번의 소소한 전투에서 작은 전공을 세웠을 뿐이다. 물론 허구화된 소설 속에서, 명나라의 장수가 되어 가달의 난을 평정하거나, 불모로 잡혀간 세자와 대군과 호란 때 잡혀간 인물들을 송환케 한 것은 악비에 못지않은 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하지 못했으며 사실과 허구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전공의 측면에서 사실과 허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악비와 비교해 볼 때 현격한 차이가 발견된다. 전공의 측면에서 보면 이순신 정도가 되어야 비교가 될 수 있다. 임경업이 악비와 비교될 수 있었던 것은, 이념적인 측면과 삶의 행적, 그리고 역사적 상황에서 이순신보다는 악비와 더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잉태와 출생과정에 차이가 있다.

영웅은 보통 고귀한 혈통을 타고 나며 잉태와 출생과정이 비정상적이지만, 전과 소설에 나타난 임경업의 탄생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임경업의 출생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서술이 없이 “화설 다행 승정 말에 조선국 충청도 충주 단월 싸히 흐 슨람이 이스니, 성은 님이오, 일흠은 경업이라. 어려서부터 학업에 힘쓰더니(님장군전, 222쪽)”<sup>46)</sup>, “대명 승정 말의 충청도 충주 달천의서 사던 사름이 잇시되 성은 림이오 명은 경업이라. 어려서부터 글읽기와 활쏘기를 부즈런이 하니(林慶業傳, 96쪽)”<sup>47)</sup>와 같은 식으로 간결하게 서술된다.

이에 비하여 악비는 그가 태어날 때 커다란 새가 방안으로 들어 왔다는 지, 여래불이 보낸 커다란 봉조(鵬鳥)가 세상에 내려와 악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무목왕정통록>, <설악전전(說岳全傳)> 등의 소설 속에 널리 수용되었다. 또 악비가 태어난 지 채 한 달이 못되어 흥수에 어머니와 함께 물결에 떠밀려갔다가, 양산박의 인물 주동과 같은 조력자를 만나 무예를 익혔다던가 하는 사건들이 전과 소설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sup>48)</sup>

그러나 임경업은 편모슬하에서 자라기는 하지만 어린 시절에 특별히 버려지거나 혹은 특별한 고난을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46) 김기현 역주, 『임장군전』, 『한국고전문학전집』1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47) 이복규 역주, 『임경업전』(시인사, 1998).

48) 소설의 경우, <무목왕정통록> 권지이, 「악봉거스가응모(岳鵬舉辭家應募)」와 <說岳全傳>의 제1회(天遣赤鬚龍下界 佛諭金翅鳥降凡)부터 제3회(岳院君閉門課子 周先生設帷授徒)까지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한 스승이 없이 홀로 무예와 병법을 익힌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출생부분의 상이점은 출생이후로 악비 이야기가 초월적인 천상계와의 관계를 유지<sup>49)</sup>하는 반면, 임경업 이야기가 세속적인 지상계와의 관계만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셋째, 주인공이 처해있던 중세적 세계 공간에 얼마간의 차이가 있다.

무너진 중세의 세계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악비와 임경업의 공통 과제였다. 그러나 중세적 세계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임경업이 해야 할 과업은 악비에 비해 더욱 심각하고 복잡하였다. 악비에게는 송과 금 두 나라 사이의 문제이지만, 임경업에게는 조선과, 명, 청 세 나라의 문제가 얽혀 있다. 악비는 중화의 땅에 태어나 중화인의 이상을 고민 없이 추구할 수 있었지만, 임경업은 이적의 나라에 태어나 행동은 중화인의 이상을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인 간극이 어려움으로 존재하고 있다. 조선이 비록 심정적으로는 중화를 자처했으나 명나라가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연하게 중화를 자칭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중세질서를 회복하고자하는 임경업의 과업은 조선이 아닌 명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다. 임경업을 도와 줄 수 있었던 조선의 군사력은 악비를 도울 수 있었던 송나라 군사력에 비하여 허약했다. 더구나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서 명나라를 도울 수 있는 힘은 더욱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악비에게 부가된 고난보다 임경업에게 부가된 현실적 고난은 더욱 큰 것이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악비는 겪지 않았지만 임경업에게 부가된 고난으로 ‘용병장수로서의 고난’, ‘포로로서의 고난’이 있다. 이 대목들은 주로 소설에 잘 나타나 있다. 소설에 의하면 임경업은 두 번 용병이 된다. 한번은 명에 사신으로 가서 호국을 도와 가달을 친 것이고, 한번은 호국의 용병으로 명을 친 것이다. 전자는 비록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중화의 군대로 이적의 문명을 정벌한 것이니, 고민이 있을 수 없었고 결과도 성공적이었다. 문제는 후자이다. 임경업은 이적(夷狄)의 용병으로 중화문명을 공격해야하는 고난을 겪는다. 이겨서도 안 되고 져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소설에서는 명나라 군대를 살상하지 않고 명나라로

49) 소설의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

하여금 거짓 항서를 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적의 용병으로 중화문명을 굴복시켰다는 점은 중세적 이상을 구현하는 것을 위배하였다는 점에서 오점이 될 수밖에 없다.

넷째, 포로로서의 고난이다.

임경업은 포로가 된다. 포로로 지내면서 오랑캐의 회유를 물리쳐야 했다. 그래서 후대에 임경업을 한나라의 소무(蘇武)<sup>50)</sup>나 송나라의 문천상(文天祥)<sup>51)</sup>의 삶에 비견하는 글도 간간히 나타난다. 한나라 무제 때 사람인 소무는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19년 만에 돌아온 인물이고, 남송의 문천상은 전쟁에 패하여 금의 포로가 되어 절의를 지키다가 순절한 인물이다. 두 인물의 삶은 후대 문인들에게 문학적인 소재로 널리 애용되었다. 소설 속에서 임경업은 포로가 되었으면서도 충의로 호왕을 감동시켜 세자와 대군 그리고 여타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든다. 호왕은 미색과 풍악으로 대접하고, 공주의 부마로 삼으려고 고까지 한다. 그리고 결국 설연관대(設宴款待)하고 예물을 갖추어 돌려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본에 따라서는 호왕이 경업을 죽이지 말라는 서찰을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삼국지연의>에서 조조가 관우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했던 여러 행동들과 끝내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돌아갔던 관우를 연상하게 한다.<sup>52)</sup> 호왕에게 임경업이 받은 대접은 포로로서 받기 어려운 대접이고 대부분 허구적인 설정이다. 소무, 문천상과 같이 절의를 지켰으나 그들과 달리 적을 감동시켜 결국 후대를 받았다는 설정이 다르다. 그것은 임경업이 소설 형식으로 허구화되었기에 가능했다. 오랑캐 나라인 적국에서도 후대를 받는 영웅의 모습은, 역으로 소중화로 자부하는 자국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는 영웅의 형상과 대조를 이루어, 후반부에 나타나는 영웅의 비극적인 죽음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

50) 『林忠愍公實記』에 수록된 조병호의 「墓碣銘」, 윤행임의 「正宗甲辰」(제문)에 그러한 언급이 보인다.

51) 『林忠愍公實記』에 수록된 이광운의 「英宗丙子」(제문)에 그러한 언급이 보인다.

52) 세창서관본 <임경업전>에서는 “장군이 비록 소국에 낫스나 충성과 영웅은 죽히 습국적 관운장을 묘시홀지라 오관에 참륙장하고 독형천리호든 충성과 갓호미 내 그옥히 아름다이 너기느니”라고 말하는 호왕의 입을 빌려 이러한 인식이 언급된다.

다섯째, 초월적 천상계의 개입여부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과 소설에서, 악비는 내부적으로는 진희, 외부적으로는 금나라와 갈등 관계에 있고 임경업은 내부적으로는 김자점, 외부적으로는 청나라와 갈등관계에 있다. 두 인물의 삶에서 갈등구조는 동일한 양상을 띤다. 두 인물은 춘추대의를 이루기 위해 분투하였지만 결국은 죽음을 맞는다. 그들이 외부적인 갈등보다는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죽은 것이어서 그들의 죽음은 더욱 비극적이다. 더군다나 송 황제와 조선 왕이 모르는 상태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서술하여, 이른바 중화문명권이 실상은 이적의 문화보다 내부적으로 더 타락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악비를 죽인 진희는 죽어 명사(冥司)에서야 그 보응을 받는다. 진희의 지옥응보 이야기는 임경업을 죽게 만든 김자점이 현세에서 쫓값을 치르는 점과 다르다. 소설에서, 악비 이야기는 출생에서부터 초월적인 천상계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개되고, 임경업 이야기는 천상계를 배제하고 순전히 현실적인 지상계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악비 이야기에서는 지상계의 갈등이 천상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지만, 임경업 이야기는 지상계의 갈등은 지상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여섯째, 춘추대의를 다면성 구현에서 차이가 있다.

임경업은 악비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욱 다양한 위기와 고난을 겪게 되고 그 국면을 극복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춘추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다양한 고난들을 한 몸으로 감당하였다. 임경업의 인물형상에는 악비뿐만 아니라, 소무와 문천상, 그리고 관우, 형가, 항우 이야기의 서사적화소가 일부 중첩돼 있다. 포로로서 지조를 지킨 소무와 문천상의 모습, 춘추대의를 지키다 비장한 최후를 마친 관우의 모습,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역수와 오강을 건너는 비장한 형가와 항우의 모습을 임경업에게도 발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임경업은 중세적 춘추대이라 하는 측면에서 악비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심각한 고난을 감당한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춘추대의를 성격을 가장 잘 구현한 인물이 되었다.

## V. 임경업 인물형상의 동아시아적 확장가능성

앞에서 악비와 임경업의 인물형상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해 보았다. 논의과정을 통해 공통점으로는 두 인물이 모두 오랑캐가 중원을 차지하던 시대에 생존했던 인물이라는 점, 『춘추』를 읽어 춘추대의를 존송했던 인물이라는 점, 오랑캐로부터 중화문명을 수호하며 중원 회복을 꿈꾸었으나 결국 실패했다는 점,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간신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점, 일심의 병법을 중시했다는 점, 영웅을 넘어 후대에 신격화 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전공의 측면, 잉태와 출생과정의 형상화, 공간적 배경, 포로로서의 고난, 초월적 천상계의 개입 여부, 춘추대의의 다면성 구현에서 다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임경업과 악비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은 매우 유사했고, 그들의 삶의 방식도 거의 동일한 행적을 보여준다. 차이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에 비하면 차이점은 비교적 사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이점은 지리적으로 주인공이 중국과 조선에 태어났다는 점이나 문학적 형상화와 관습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과 소설에 나타난 임경업의 인물형상은 역사 속에 실존한 임경업의 삶 자체는 물론이려니와 당대와 그 이전의 여러 인물 형상들이 서사담론의 심층에서 누적되어 문학사의 표면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경업의 인물 형상은 악비 아닌 다른 서사적 인물들과도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위상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이 관우이다. Ⅲ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춘추』를 즐겨 읽었던 무장의 기원은 관우에게서 찾을 수 있다. 『삼국지연의』에서 관우가 추구한 중세적 춘추대의는 화이론의 방식보다는, 조조가 찬탈한 한실을 부흥하고자하는 정통론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화로서 한족의 국가적 정체성은 한나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한실정통론은 한족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축한을 중심으로 한 한실정통론은 중원이 오랑캐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 강하게 대두되었다. 진나라 진수(陳壽)의 정사 『삼국지』나 북송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에서는 위(魏)를 정통으로 보았지만, 남송의 주희(朱熹)는 『자치통감강목』에서 그들과는 달리 촉(蜀)을 정통으로 보았

다. 그것은 오랑캐가 중원을 차지했던 남송의 시대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족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하게 요구되었으며, 관우와 제갈량의 중원회복은 남송의 중원회복을 상기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동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은 『삼국지연의』가 지어지던 나관중 시대의 상황과도 유사하다. 나관중은 원말명초의 인물이다. 원나라는 이민족의 나라지만 중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원명교체기에 주원장은 한족중심의 민족주의를 강하게 표방했다. 빈농출신인 주원장이 원을 타도하고 명을 세울 때에 원의 한족 실력자들을 조조와 동류로 몰아쳐 민중의 호응을 얻었다. 나관중도 주원장과 동시대인이고 원말 반란지도자였던 장사성(張士誠)의 막부에 참가했다고도 하고, 정국이 통일되기 전에는 왕위를 노리기도 했다.<sup>53)</sup> 그러므로 한실정통론을 표방하는 『삼국지연의』가 나오게 된 시대적인 배경도 한족민족주의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춘추』를 즐겨 읽고 춘추대의를 숭상했다는 점 이외에도, 중원회복을 꿈꾸었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점, 영웅을 넘어서 후대에 신격화되었다는 점도, 관우의 인물형상이 악비·임경업과 비교해보았을 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오랑캐가 비록 중원을 차지하지는 않았으나 가짜 왕이 중원을 차지했던 관우의 시대는, 이민족이 중원을 차지했던 시대와 비교해보아도 어느 정도의 유사점이 있다. 춘추대의를 명분과 정통의 측면에서 가짜가 중원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우가 내부의 간신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관우의 죽음에 구원병을 속히 보내지 않은 내부 신하들의 배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관우는 ①실패한 영웅이면서 ②중세적 가치로서 춘추대의를 추구하고 ③탁월한 무인(武人)이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보면, 악비나 임경업과 동일한 인물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보면, 임경업은 실패한 영웅이면서, 춘추대의를 추구하고, 무인(武人)이었다는 점에서 악비, 관우뿐만 아니라 김응하의 형상과 닮았다. 김응하(金應河)는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조선에 태어나 용병장수로 출정했다는 점에서 임경업의 삶과 더욱 가깝다. 그러나

53) 연세대 중문과, 「나관중」, 『중국문학사전Ⅱ-작가편』(다민출판사, 1988) 참조.

내부의 간신에 의해 죽은 임경업과는 달리, 전쟁터에서 적군과 고군분투하다가 중과부적으로 죽었다는 점이 임경업과 다르다.<sup>54)</sup> 김웅하와 함께 출정했던 강홍립(姜弘立)은 임경업이 두 번째 용병장수로 출전했을 때처럼 싸움을 기피했으나, 그 대상이 명이 아니라 청나라였다는 점이 다르다. 강홍립도 실패한 영웅이면서 무인이라는 점에서는 임경업과 다를 바 없지만, 춘추대의의 이상을 거역하고 현실적인 힘의 논리를 따랐다는 점에서 임경업이나 김웅하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한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임경업의 인물형상에는 악비와 관우, 김웅하와 강홍립 이외에도, 포로이면서 원 세조의 회유를 죽음으로 끝까지 거부했던 문천상(文天祥), 포로가 되어 양을 보면서(看羊) 지조를 꺾지 않고 고난의 세월을 감당했던 소무(蘇武)의 형상이 서사화소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중첩돼 있다. 그리고 조선을 떠나 황해를 건너 중국으로 향하는 비장한 임경업의 형상에서, 칼 한 자루를 품고 혈혈단신으로 역수를 건너며 천하의 일을 도모하려 했던 형가(荊軻)의 모습, 복수의 일념을 불태웠던 오자서(吳子胥)의 비장한 형상, 큰 포부를 품고 오강을 건너며 천하의 일을 도모했다가 끝내는 비장한 최후를 마친 항우(項羽)의 영웅다운 기상 등의 서사적 공통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의 인물형상에는 동아시아 서사문학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서사적 화소가 다양하게 중첩적으로 투영돼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보면, 악비와 임경업은 동아시아서사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인물형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물군의 계보를 동아시아서사문학의 전형적 인물에 해당하는 ‘악비형 인물’, 또는 ‘임경업형 인물’로 설정해볼 수 있다. 동아시아문학사에서 이러한 계보의 인물형은 관우로부터 비롯되어 악비에 이르러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임경업이 그 최후를 장식했다. 이들은 모두 ①실패한 영웅이면서 ②동아시아의 중세적 가치인 춘추대의를 추구하고 ③탁월한 무인(武人)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임경업형 인물형’은 중세시대의 유교적 대의명분론에 바탕을 둔 탁월한 무장이지만 실패한 영웅형상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형은 동아시아서사문학에서 전형적 보편성을

54) ‘김웅하전’은 박희현, 홍익한, 박재, 홍세태, 김육, 홍양호, 이태수 등 여러 사람들에 의해 입전되었으며, 『동야휘집』, 『역대유편』 같은 야담집에도 김웅하이야기가 전승되었다.



지니고 있으므로, 비단 관우, 악비, 임경업, 김웅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물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관우와 악비와 임경업에게서, 우리는 중세적 이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비장하게 살다간 영웅들의 형상을 발견한다. 한족인 관우와 악비는 중화주의에 바탕을 둔 춘추대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유교적 역사관에 바탕을 둔 중세의 보편적 시대정신을 온전히 구현하였다. 이들을 형상화한 이야기들은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인물형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임경업의 경우는 특별하다. 그는 일반적인 한족보다도 더욱 투철하게 춘추대의를 표방했지만 그 자신이 한족인 것은 아니었다. 또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점차 중세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가 지니고 있던 투철한 춘추대의론은 이미 시대적 효용을 다하여 시대착오적인 점이 있었다.

임경업은 한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중화주의를 추구하고, 중세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중세적 가치를 더욱 완고하게 고수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형상화되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극심하게 나타나던 시대였고,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이상도 바뀌어야 했던 시대였다. 그러나 임경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역사적인 흐름에 비추어, 그가 춘추대의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떨어진 이상과 현실의 거리만큼, 소설 〈임경업전〉에서는 사건의 측면에서 역사적 사실과는 판이하게 다른 허구적 서사의 개입이 이전의 악비 이야기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다.

관우와 악비의 죽음은 비장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 시대 독자들은 그들의 죽음에서 중세적 춘추대의를 부활을 기대했을 법 하다. 그러나 임경업의 죽음이 그 시대 독자들의 심성에 똑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경업전〉을 읽으면서 춘추대이가 정말로 목숨을 걸만한 가치인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소설에서는 집권층의 이념을 단순히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라, 민중의 삶과 친화적인 민중영웅의 성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보이기도 하며, 호왕에 대한 긍정적 서술도 나타난다. 그러한 점에서 중세적 춘추대의를 균열과 부분적 이견이 반영되기도 했다. 또한 당대의 독자들은 임경업이라는 중세 춘추대의를 영웅이 죽어가는 최후의 광경을 보면

서, 중세의 이상이 정말로 끝났음을 확인하였을 법하기도 하다.

## VI. 맺음말

이 글은 전과 소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서사자료에 나타난 악비와 임경업의 인물형상을 비교하고 그와 관련하여 임경업의 인물형이 지니고 있는 서사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탐색해 본 것이다.

악비와 임경업이 비교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숙종 때부터이며 조선시대 사람들도 악비와 임경업의 관련성에 주목한 바 있다. 악비와 임경업의 인물형상을 다룬 자료들로는 중국과 한국에 전과 소설들이 다수 전해진다. 전은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반영했으며, 소설에서는 서사적으로 허구적인 사건들이 추가되었다. 허구적인 사건의 비중은 악비보다는 임경업에게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두 인물이 모두 오랑캐가 중원을 차지하던 시대에 생존했던 인물이라는 점, 『춘추』를 읽어 춘추대의를 존송했던 인물이라는 점, 오랑캐로부터 중화문명을 수호하며 중원회복을 꿈꾸었으나 결국 실패했다는 점, 오랑캐가 아닌 내부의 간신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점, 일심의 병법을 추구했다는 점, 영웅을 넘어 후대에 신격화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전공의 측면, 잉태와 출생과정의 형상화, 공간적 배경, 포로로서의 고난, 초월적 천상계의 개입 여부, 춘추대어의 다면성 구현에서 다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임경업의 인물 형상은 악비 이외에도, 실패한 영웅이면서, 춘추대의를 추구하고, 탁월한 무인(武人)이면서도, 실패한 영웅이었다는 점에서 관우와 김웅하의 형상을 닮았다. 그밖에도 강홍립, 문천상(文天祥), 소무(蘇武), 형가(荊軻), 오자서(吳子胥), 항우(項羽)와 같은 인물들도 인물형상의 측면에서 관련화소를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실패한 영웅이면서, 춘추대의를 추구하고, 탁월한 무인(武人)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임경업형 인물형'의 계보를 설정해볼 수 있다. '임경업형인물형'은 중세시대의 유교적 대의명분론에 바탕을 둔 탁월한 무장이지만 실패한 영웅의 인물유형이다.

동아시아문학사에서 이러한 계보의 인물형은 관우로부터 비롯되어

악비에 이르러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임경업이 그 최후를 장식했다는 점에서 각기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임경업의 경우는 매우 특별하다. 그는 일반적인 한족보다 더욱 투철한 춘추대의를 표방했지만 그 스스로가 한족인 것은 아니었다. 또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중세가 저물어가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가 지니고 있던 투철한 춘추대의론은 이미 시대적 효용을 다하여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다.

임경업은 한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중화주의를 표방했고, 중세가 거의 끝난 지점에서 오히려 중세적 가치를 완고하게 고수했다. 임경업은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저물어가는 중세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가 춘추대의를 현실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멀어진 이상과 현실의 거리만큼, 소설 〈임경업전〉에서는 사실과 다른 허구적 서사의 개입이 그 이전의 악비 이야기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다.

영웅이 시대를 만들고, 또한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한다. 임경업은 흘러간 시대를 회복하려했던 영웅이다. 그러므로 그는 새로운 시대를 만든 영웅은 아니다. 그는 시대가 만든 영웅이며, 또한 시대를 잘못 만난 영웅이다. 악비와 임경업, 두 인물을 통해 불행한 시대가 만들어 내는 영웅의 형상과 그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악비와 임경업의 단순 비교를 넘어서서 ‘임경업형 인물’의 동아시아서사문학적 계보를 확인하고 그 전모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차후에 더욱 심도 있고 정밀한 후속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다만 그 출발점에서 거시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 『님장군전』(경관 27장본). 김기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1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 『大宋中興通俗演義』. 熊大木, 巴蜀書社, 1995.
- 『무목왕정통녹』(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도서번호4-6806, 1760.
- 『林慶業傳』(世昌書館本, 장덕순·최진원 교주본). 『한국고전문학전집』 1, 교문사, 1978.
- 『임경업전』. 이복규 역주, 시인사, 1998.
- 『會纂宋鄂岳武穆王貞忠錄』(숙종중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 도서번호2-288.
- 『林忠愍公實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초간본). 1791.
- 『林忠愍公實記』(조선광문회 간행 중간본). 1890.
- 王德保·岳朝軍, 『文淵閣 四庫全書 岳飛資料滙編』上·下.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15.
- 『說岳全傳』(錢彩 편차). 金豊 증정, 중화서국, 2013.
- 「金將軍傳」. 『충렬록』(규장각소장본), 도서번호12020.
- 「姜虜傳」. 박희병, 『한국한문소설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 2. 단행본

- 이복규, 『임경업전 연구』. 집문당, 1993.
- 한명기, 『역사평설 병자호란』 1,2. 푸른역사, 2015.

### 3. 논문

- 권혁래, 「임경업전의 주인공 형상과 이데올로기」. 『고소설연구』 제35집, 한국고소설학회, 2013, 5-26쪽.
- 박경남, 「임경업 영웅상의 실체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207-238쪽.
- 박재연, 「낙선재본 무목왕정통녹 해제」. 『중국소설·희곡번역자료 총서5-무목왕정통녹』, 학고방, 1996, 239-255쪽.
- 서대석, 「임경업전 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고전소설연구』, 정음사, 1979, 278-296쪽.
- 서중원, 「서해안 지역의 임경업 신앙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1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6, 233-261쪽.
- 서혜은, 「경관 <임장군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제27집, 한국고

- 소설학회, 2009, 109쪽-135쪽.
- 장경남, 「임경업전 연구사」.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325-332쪽.
- 조지형, 「조선후기 〈무목왕정통록〉의 번역·제작과 그 의도」. 『어문연구』 제41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123-144쪽.
- 조지형, 「조선 전기 ‘岳飛’ 고사의 수용과 인물형상의 정립 과정」, 『대동문화연구』 제77집, 2012, 269-299쪽.

#### 4. 사이트

- 오세길, 「임경업장군」.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편』, 한국민속박물관(<http://folkency.nfm.go.kr/kr/topic/임경업장군/2681>, 2010).

## 국 문 초 록

악비와 임경업의 인물형상이 본격적으로 비교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숙종 때부터이다. 숙종 연간은 임병양란이후 집권층이 유교의 중세적 명분론을 다시 확립하고 강화하던 시기이다.

악비와 임경업의 인물형상을 다룬 자료들로는 중국과 한국에 전과 소설들이 다수 전해진다. 전은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반영했으며, 소설에서는 서사적으로 허구적인 사건들이 추가되었다. 허구적인 사건의 비중은 악비보다는 임경업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

두 인물이 모두 오랑캐가 중원을 차지하던 시대에 생존했던 인물이라는 점, 『춘추』를 읽어 춘추대의를 존송했던 인물이라는 점, 오랑캐로부터 중화문명을 수호하며 중원회복을 꿈꾸었으나 결국 실패했다는 점, 오랑캐가 아닌 내부의 간신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점, 일심의 병법을 추구했다는 점, 영웅을 넘어 후대에 신격화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전공의 측면, 잉태와 출생과정의 형상화, 공간적 배경, 포로로서의 고난, 초월적 천상계의 개입 여부, 춘추대의의 다면성 구현에서 다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임경업의 인물 형상은 악비 이외에, 실패한 영웅이면서, 춘추대의를 추구하고, 탁월한 무인이었다는 점에서 관우와 김웅하의 인물형상과 닮았다. 그밖에 강홍립, 문천상, 소무, 형가, 오자서, 항우나 홍익한, 윤집, 오달제와 같은 삼학사와도 인물형상의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기 특정 서사화소별로 일정하게 연관돼 있다. 동아시아 서사문학사에서 실패한 영웅이면서, 춘추대의를 추구하고, 탁월한 무인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임경업형 인물형’의 전형과 계보를 설정해 볼 수 있다. ‘임경업형인물형’은 중세시대의 유교적 춘추대의와 명분론에 바탕을 둔 탁월한 무장이지만, 그 대의명분의 성취에는 실패한 영웅형상으로서, 동아시아서사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투고일** 2018. 6. 20.

**심사일** 2018. 7. 4.

**게재 확정일** 2018. 8. 27.

**주제어(Keyword)** 악비(Akbi), 임경업(*Im Gyeong-eop*), 인물형상(Character-type), 춘추대의(*Chunchudaewi*), 임경업형 인물계보(Character-type of *Im Gyeong-eop*)

## Abstracts

### Character-type of Akbi (Yue Fei) and Im Gyeong-eop **Heo, Weon-gi**

The comparison of Akbi (Yue Fei, 岳飛) and Im Gyeong-eop (林慶業) began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in the Joseon Dynasty.

The two historic personalities had many things in common. They lived in the times when the barbarian tribes occupied the central land of China. They both enjoyed reading *Chunqiu*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春秋) and held a high admiration for the moral principle of *Chunqiu* (春秋大義). They exerted themselves to defend the Chinese civilization and recover China's old territory, but to no avail. They were eventually killed by internal betrayers, not by their enemies. They pursued a military strategy of one-mind. They were regarded as more than just heroes and elevated to the level of deities in later periods.

Yet they revealed some differences as well, notably in military achievements, the configuration of their conceptions and births, and the spatio-temporal backgrounds. While Im suffered as a captive, Akbi did not. The variances were also witnessed in transcendental heavenly intervention and multi-faceted implementation of the moral principle of *Chunqiu*.

The character type of Im Gyeong-eop is a failed hero; as an outstanding warrior, he relentlessly pursued the moral principle of *Chunqiu*, but fell short of realizing it. It has an important and special meaning in the configuration of characters in East Asian narrative history.